

“AI·모빌리티 광주 첨단산업 지형 바꿀 것” 지원 확대 약속

●尹대통령, 광주 발전 비전 제시

소부장특화단지·미래차국가산단 등 모빌리티혁신 거점화
비엔날레 전시관·대표 도서관 건립 ‘문화중심도시’ 조성
복합쇼핑몰 대중교통 인프라 조성...영산강 식수원 활용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중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광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이후 110일 만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장우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이도운 홍보수석·박춘섭 경제수석·장상운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 문화예술인·기업인·연구자·학부모 등 광주시민 80여명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발전 비전으로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 놓겠다.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교가 2027년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AI영재고 설립 예산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 협의가 안돼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당에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36억원을 투입,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며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 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의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 그는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 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며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천181억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원을 투자해 광주대표 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원을 추가 투자해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39억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전남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해 수도권 못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관람 5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의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광주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광주시민들께서 복합쇼핑몰을 통해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진수·박선강 기자

“광주비엔날레 브랜드 가치 높이게 지원”

尹대통령,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비엔날레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작품에 참여한 각 국가의 큐레이터와 작가, 주한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대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도운 홍보수석·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운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30개 국가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와 함께 해외 국가 및 문화예술기관이 주체가 돼 국가관을 조성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개최된다. 파빌리온 전시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 국가 9개 도시·기관이 참여해 총 31개 파빌리온을 선보여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를 주제로 한 필리핀 파빌리온, 환경과 구성 요소 간 상호 작용을 주제로 한 싱가포르 파빌리온, 아세안 10개 국가의 자연을 소재로 한 한-아세안센터 파빌리온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김진수·박선강 기자

尹대통령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적극 돕겠다”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요청에 화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을 약속, 행사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해안 관광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수섬박람회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섬박람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요청에 윤 대통령이 이같이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분기별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어젠다로 집중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박람회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수섬박람회는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지 돌산 진모지구·세계박람회장·개도·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30개국이 참여하고 국내외에서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행사다.

현재 박람회장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부터 행사장·전시관 등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여수시는 행사 준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람회 개최 예산은 248억원이다. 국비 64억원과 도·시비 64억원, 자체 수익 120억원 등이다. 국비는 64억원 중 절반인 32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시는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국비를 모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와 밀접한 SOC인 화태·백야 도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 등을 개최 시기에 맞춰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전라남도대표축제
영광불갑사문화제

전국 최대 상사화 군락지에서 즐기는 주요 프로그램

- 상사화 소원의 길
- 상사화 산사 음악회
- 상사화 꽃길걷기
- 상사화 대학가요제
-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 상사화 세계 문화 퍼레이드
- 상사화 달빛야(夜)행

2024. 9. 13.(금) ~ 9. 22.(일) 영광 불갑사 관광지 일원

영광군청 영광군의회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광진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최현규

주최/주관 : 영광불갑사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중심의 동행축제